

#1주년기념호

**HAPPY
BIRTH
DAY
ECHO**



EC HO

val. 9, 10

Engaging
Communicating
Hosting
Outreaching

발행인

김성해 Kim seong hae

편집위원장

이승민 Lee seung min 조은진 Jo eun jin

부편집위원장

Editor - 윤유미 Yun yu mi

Design - 권재승 Kwon jae seung

편집위원

Design - 손현아 Son hyun a

Design - 손민정 Son min jeong

Editor - 나중일 Na jung il

Editor - 김나영 Kim na young

Editor - 정지영 Jung ji young

Editor - 김가희 Kim ga hee

Editor - 김고은 Kim go eun

Editor - 공유나 Kong yu na

Editor - 우혜정 Woo hye jung



햇살 가득해질 무렵
 날선 옷 매무새는 차츰 흐트러지고
 노랗게 달구어진 진군나팔 소리 메아리진다.

울림의 파동에 찾아든 꿀벌 한 마리
 주위를 녹인다.
 더불어 봄을 일군다.

얼음새꽃/ 김영재 中

2016년, 가을에 만난 우리는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공감의 힘을 믿으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덟 권에 담았습니다.
 이번 1주년 특집을 제작하며 1년 동안의 에코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초심으로 되돌아보자는 의미와, 과거를 돌아보며 앞으로 더 성장해나갈
 에코를 위해 RE:RESTART를 주제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부디 따스한 시선으로 이번 호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에코의 울림이 더 커지길 바라며,
 에코의 1주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ECHO가족울림-

1주년 기념호 CONTENTS :

E

- 06 Replay 하고 싶은 나만의 playlist ECHO
ECHO 편집위원 소개
- 11 발행인 김성해 교수님의 ECHO 1주년 축하글
- 12 E_soyez fier de vous ; 당신을 자랑스러워하라
자랑스러웠던 순간들
- 15 나의 ECHO
신입 에디터의 ECHO 도전기
- 16 알.쓸.예.잡
알아두면 쓸데없는 에디터의 잡다정보
- 17 흘러가는 시간들을 붙잡아 둘 수 있다는 것
ECHO를 떠나며

C

- 19 구체적 활동으로 자존감을 키워라
대한법률구조공단 홍보실장님의 창간 1주년 특별 기고문
- 21 익숙하지만 새로운 그들의 이야기
기억에 남은 ECHO 이야기

H

- 25 우리들의 Youth
KOSAC 금상 주인공들의 인터뷰
- 28 몽골스타 신바트의 유학생활
미컴과 새내기 신바트 인터뷰
- 30 MCPLUS 이 달의 콘텐츠 주인공을 찾습니다
MCPLUS 홍보팀장 인터뷰

O

- 32 지나가버린, 지나가버릴 계절을 기억하며
가을의 노래 추천
- 35 나를 살찌우는 것들
몸과 마음 살찌우기

-

ECHO 창간 1주년 축하메세지



Engaging

🎵 REPLAY하고 싶은 나만의 플레이 리스트



ECHO



ECHO



161,008

항상 우리 곁에 자리 잡고 있는 노래, 휴대폰을 켜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가면 어떤 노래들이 자리 잡고 있을까? 다시재생 하고 싶은 노래, 새로 나온 노래, 나만 알고 있는 노래 등 자신의 기호에 맞추어 갖춰져 있는 '나만의 플레이리스트'가 있다.

1주년을 맞이한 ECHO도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기호에 맞는 플레이리스트가 되어보기로 했다. 계속 읽고 싶어지는 글을 쓰는 에디터 팀,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을 만들어 내는 디자인 팀들이 모여 ECHO를 이뤄냈다.

마치 다양한 노래가 모인 플레이리스트처럼 말이다. ECHO의 노래를 여러분에게 들려주려고 한다.



KT LTE 오후 10:08 16%

🎵 **이토록 삶이 아름답다노** ✕
 에디터팀 팀장 조은진



161,008

1. 웹진을 만들면서 얻은 것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모두 아름다운 자신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고 있구나.
 하면서 내 삶의 이야기들을 돌아보게 된 것.
 두 번째로는, 스스로를 자랑스러워 할 수 있게 된 것. 에코를 받아
 글을 쓰고 다듬고 완성시킨 에코는 충분히 나를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
 2. 나에게 에코는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준 보물!
 3. 1년이라는 시간동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릴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나도 함께 자랄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노력하자!

🎵 ⏪ ⏩ ⏮ ⏭ ⏯

KT LTE 오후 10:08 16%

🎵 **새벽 두 시, 라디오가 밝는 잠음** ✕
 김나영 에디터




161,008

1. 에코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얻었네요. (예!!)
 2. 나에게 에코란 멋진 일기장이다
 3. 우리 사랑 변치 않도록 해 (하트)

🎵 ⏪ ⏩ ⏮ ⏭ ⏯

KT LTE 오후 10:08 16%

🎵 **Super Rich Kids (feat. 정신적 지주)** ✕
 윤유미 에디터



161,008

1. 에코를 통해 내가 노력해서 만든 모든 것들에 대해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그 감정들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 팀원들에게도 많이 전파 해 주려고 노력 중이다.
 2. 나에게 에코란 손에 난 작은 상처다.
 뭔가 자꾸 신경 쓰이고 살펴보고 싶어서.
 3. 비록 ECHO는 떠나지만, 앞으로 3년, 5년, 10년
 어딘가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 ⏪ ⏩ ⏮ ⏭ ⏯

KT LTE 오후 10:08 16%

🎵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디터 나중일입니다** ✕
 나중일 에디터




161,008

2. 에코를 통해 다양한 관점, 다른 생각을 배웠습니다.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기고문을 위주로 실었습니다.
 도움주신 기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3. 나에게 에코란 훈련장이다.
 4. 1주년 축하합니다. 자리를 떠난 창간호 구성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계신 에디터와 디자이너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더 잘 합시다.

🎵 ⏪ ⏩ ⏮ ⏭ ⏯

KT LTE 오후 10:08 16%

새싹이 피어나는 시간
 공유나 에디터




161,008

1. 하나의 에코워킹을 위해 얼마나 많은 열정과 노력이 필요한지 깨달았고 테드라인에 쫓겨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 시간 또한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2. 에코란 소주다. 왜냐하면 소주가 먹을 땀 쓰지만 먹고 나면 기분이 좋은 것처럼 에코도 만들어가는 과정은 힘들 때도 있지만 다 만들고 나서 보면 뿌듯하고 기분이 좋기 때문입니다.
3. 에코야! 너랑 나랑 오늘 1주년이야 오래가자♥

EQ

KT LTE 오후 10:08 16%

에코가 저를 만들었는지 몰라요.
 에코의 자식 에디터 팀 우혜정입니다.




161,008

1. 에코를 만들면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배웠습니다.
2. 에코란 진수성찬이다. 진수성찬처럼 맛있는 게 많고 골라먹는 재미도 있으니까!
3. 심심한 대학생활에 즐거움과 고통을 동시에 준 에코 생일 축하하고 5주년 10주년 15주년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옆에서 같이 보고 싶다! 같이 성장해나가자!!

EQ

KT LTE 오후 10:08 16%

꽃을 위한 거름
 김고은 에디터




161,008

1. 에코를 통해 자신감을 얻어갈 것입니다! 갈수록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에코를 하면서 잡지 에디터라는 직업에 필요한 능력도 배우고 자신감도 충전하고 싶어요!
2. 나에게 에코란 거름이다.
3. 열심히 적응해 나가겠습니다! 에코 선배님을 잘 부탁 드려요! 에코야! 생일을 축하해!

EQ

KT LTE 오후 10:08 16%

자랑스러운 나
 김가희 에디터




161,008

1. ECHO의 '당신을 자랑스러워하라'라는 슬로건처럼 에코 활동을 할 때 나 자신이 자랑스러워지는 순간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2. 나에게 에코란 도전이자 소통이다.
3. 저를 당당히 ECHO의 에디터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을 그리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EQ

KT LTE 오후 10:08 16%

🎵 I GOT YOU UNDER MY ECHO (Feat.난 너의 조력자) ✕
디자이너팀 팀장 이승민



🔄 161,008 🔄

1. (한번의 편집과 함께 날이 선듯한 강한 완성 본 두 번의 편집 뜨겁게 터져버릴거같은 ECHO)
2. 웹진을 만들면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다양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얻었다. 돈을 주고도 사지 못하는 그들의 스토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기 때문.
3. 샌드위치. 다양한 맛을 볼 수 있는 콘텐츠들이 있으니까
4. 예코야 생일 축하해. 너의 탄생과 동시에 한살이 된 것을 본 나로써는 굉장히 뿌듯하구나!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을 것이니 기대해도 좋아!

🎵 ⏪ ⏩ ⏸ EQ

KT LTE 오후 10:08 16%

🎵 없는 게 메리트 (Feat. 있는 게 젊음) ✕
권재승 디자이너



🔄 161,008 🔄

1. 사진과 글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2. 나에게 예코란 기회이다.
3. 예코야 우리 천천히 오래가자.

🎵 ⏪ ⏩ ⏸ EQ

KT LTE 오후 10:08 16%

🎵 무궁무진해서 좋은 ✕
손현아 디자이너



🔄 161,008 🔄

1. 예코를 통해 편집 디자인 실력이 쏘~꿈이나마는 거 같다
2. 나에게 예코란 (무궁무진함) 이다.
3. 앞으로 이 주년 삼 주년 사 주년 쪽쪽 미컴과의 활발한 활동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 ⏪ ⏩ ⏸ EQ

KT LTE 오후 10:08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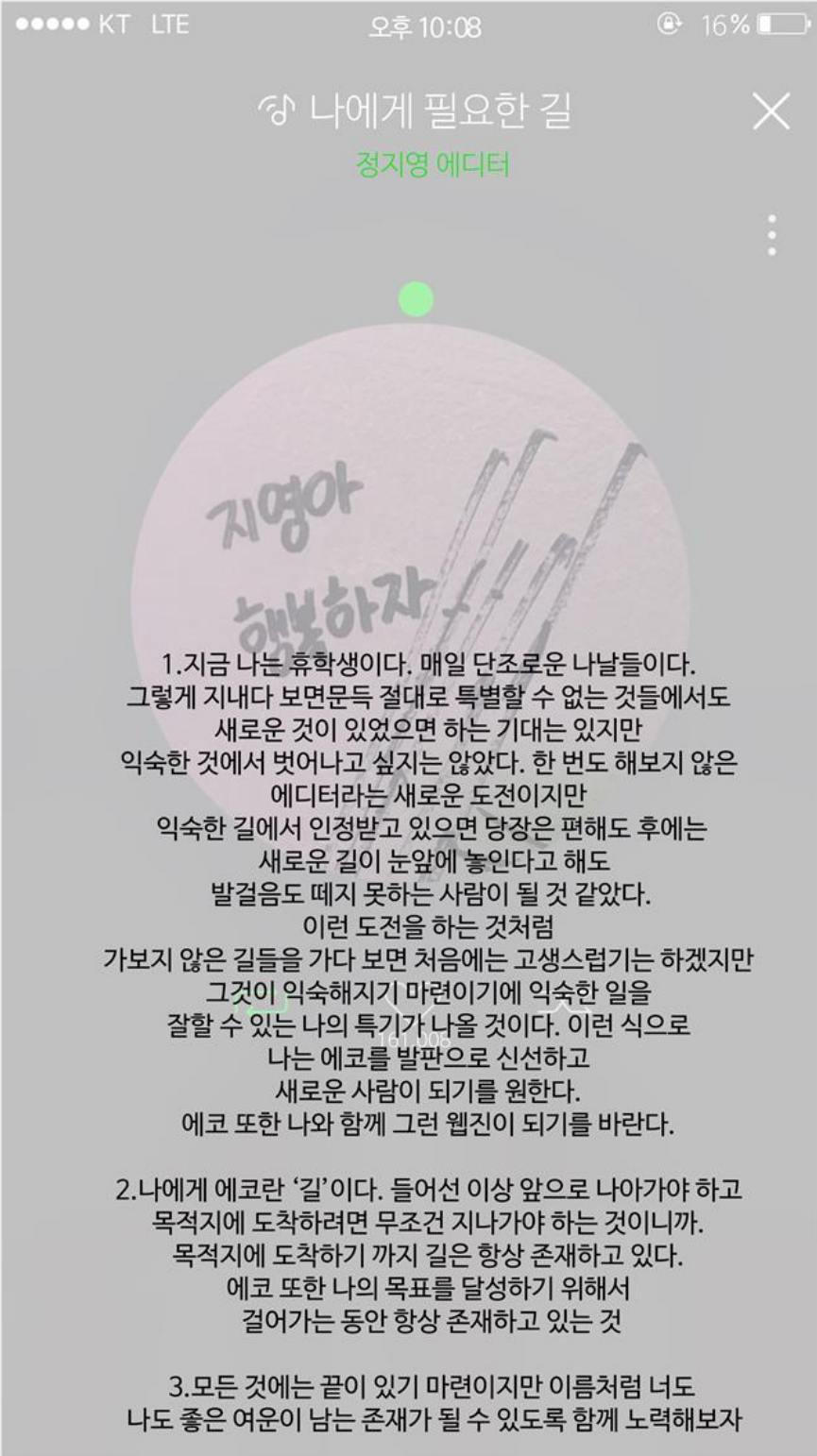
🎵 나를 성장시킬 너 (feat.ECHO) ✕
손민정 디자이너



🔄 161,008 🔄

1. 예코신입팀원으로써 앞으로 디자인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
2. 나에게 예코란 '기회'이다.
3.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즐거운 예코가 되면 좋겠습니다!!

🎵 ⏪ ⏩ ⏸ EQ



ECHO 1주년을 축하하편서

한국 역사에서 1977년은 꽤나 고단한 시기였다.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를 내건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발전과 자주국방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평범한 소시민들은 '성장'보다는 '분배'를 통해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키운 시기였다. 도시 빈민의 쓸쓸한 죽음을 통해 노동자의 고통을 그린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과 황석영의 <객지>를 비롯해, 가난과 절망을 온 몸으로 감당해야 했던 농부의 삶을 노래한 신경림의 <농무>는 당시 상황을 잘 보여준다. 화이트컬러와 지식인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였다.

1975년 발표된 김지하의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집에는 “아직 동트지 않은 뒷골목의 어딘가// 발자국 소리 호르락 소리 문두드리는 소리//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소리// ... 숨죽여 흐느끼며// 네 이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라는 절규가 담겨 있다. 지금은 헌법에 어긋난 것으로 결정이 난 '긴급조치'로 재판도 없이 무수한 사람들이 감옥으로 끌려간 암울했던 때였다. 광주여고 교사였던 양성우가 <겨울공화국>이라는 시를 통해 “총과 칼로 사납게 옥박지르고// 눈과 발에 자라나는 우리들의 뜻// 군화발로 지근지근 짓밟아대고// 밟아대며 조상들을 비웃어 대는// 지금은 겨울인가 한밤중인가”라고 낭송한 이후 학교에서 파면되고 감옥으로 끌려간 것도 이 시기였다. 그런 1977년 지금은 '김창완밴드'로 이름을 바꾼 록그룹 '산울림'은 “아니 벌써 해가 솟았나”를 발표했다.

“아니 벌써 해가 솟았나// 창문 밖이 환하게 밝았나// 가벼운 아침 발걸음 모두 함께 콧노래 부르며// 밝은 날을 기다리는 부푼 마음 가슴에 가득/ 이리저리 지나치는 정다운 눈길 거리에 찾네.” 당시 시대와는 좀 다른 경쾌한 리듬에 가사도 아주 밝았다. 힘들어도 재미있게 살아보자는 메시지와, 고단해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자는 뜻이었으며, 지치지 않고 묵묵히 나아갈 때 새날이 온다는 선언이었다. 2016년 광화문 촛불시위가 가능했던 것도 이런 경험이 축적된 덕분이다.



벌써 1주년을 맞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 노래가 생각났다. “아니 벌써, 1년이 지났어”라는 감회에 젖었다. 학과장이신 하진홍 교수님의 제안으로 웹진을 부탁 받았을 때는 참 막막했다. 1977년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건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다. 우리 수준에 웹진을 만들 수는 있을까? 막상 시작은 했는데 다들 비웃으면 어떻게 하나? 취업에도 성적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일에 누가 참가하려고 할까? 참 우스꽝스러운 걱정을 많이 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모든 것을 아는 지혜로운 천자는 없다,” “씨앗을 뿌려야 거둔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이 떠나지 않았다. 놀랍게도 꽤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첫 삽을 떴고, 지금은 꽤나 잘 살아남았다. “당신을 자랑스러워하라”고 했던 선언이 공연한 구호가 아니다.

돌잔치를 가보면 알지만 정말 기쁨과 축하가 넘쳐난다. 지금은 누구나 당연히 누리는 첫돌이지만 예전에는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1년을 못 넘기고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에 더 특별해진 날이다. “병들지 말고, 오래토록 행복하게 살라”는 뜻에서 마련하는 자리다. ECHO의 1년도 그런 자격을 갖추었다. 살아남는 것을 넘어 앞으로 더욱 멋지게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도 있다. 귀한 동행을 허락해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당신을 자랑스러워 하라 -

당신을 자랑스러워하라! ECHO를 창간할 때부터 시작된 우리의 울림 중 하나였다.
1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는 ECHO의 울림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1. 미디어커뮤니케이션 4윤유미

나로 말하자면 사실 자랑스러웠던 적보다는 자괴감에 빠져 살았던 날들이 훨씬 많다. 그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등등.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나 날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보다 저 자신이 자랑스러웠고, 보람찼던 기억 속에 파묻혀 행복하고 평온하게 사는 것이 낫지 않은가? 조금 안일하고 배부른 소릴 순 있지만, 모두가 불행에 심취한 것보단 낫다.

나는 아직도 가끔 자랑스럽거나 보람찼던 일을 돌이켜 본다면 2015년 여름이 생각한다. 그더운 대구의 여름에서 조감독인 선배를 따라 메이킹필름을 찍으러 갔을 때였는데, 독립단편영화라서 환경이 열악했다. 나는 어쩔뻔 조명을 받쳐 들고 있었고, 선배가 카메라 감독님 밑에서 잔심부름도 했다. 아침 7시에 모여 촬영 준비를 하고, 그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찍고 나서야 그 하루의 촬영을 마치는 강행군이였다. 하나의 장면도 허투루 찍지 않기 위해 테이크를 스무 번도 넘게 가고, 소품으로 나오는 아이스크림 하나 때문에 더운 여름에 정류장 두어 개를 뛰어갔다 와야 하고, 주변의 튀는 소리들 때문에 실내에서는 에어컨도 켜지 못한 채로 촬영하는 것 등. 정말 힘들었다.

그 후 감독 선배는 대구 단편영화제의 경쟁작으로 영화를 출품했고, 나는 완성된 영화를 처음 보게 되었다. 그런데 기대도 하지 않았던 엔딩 크레딧에 내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걸 보고서 이상하게 숨이 조금 멈추는 느낌이 들었다. 2015년 여름의 고생은 이렇게 독립 단편 영화 하나에도 가슴이 뛰고 나 자신이 자랑스러워지며 내가 아마 일을 계속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한 최고의 경험이었을 것이다.



2. 미디어커뮤니케이션 3차아영

늦은저녁, 마을까지 들어오는 버스를 타곤 할때면 무거운 짐을 이고 타시는 같은 동네 할머니분이 항상 계신다. 무거운 짐 가방을 이고 계시는 할머니를 보면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 매번 버스에서 내릴 때 짐을 같이 내려 같은 길까지 데려다 드리곤 했다. 그 날도 버스에서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께 인사하고 자리에 있는데, 학생, 하고 부르시며 무언가가 가득 든 봉지를 나에게 건네주셨다. 할머니께서는 “다음에 학생 만나면 주려고 집에서 손녀가 안 쓰는 머리 묶는 끈과 머리핀들을 들고 왔다”고 하셨다. 할머니께서 건넨 그 고마운 마음이 마치 나의 작은 선행이 큰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했다. 뿌듯함이 마구마구 일었고 내가 남에게 있어 작은 도움이라도 줄수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 내가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다.

이번 여름 방학 때 ‘유럽 여행을 가기 전 카메라를 꼭 사고야 말 테다’라는 부푼 마음을 껴안고 택배 물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덥고 힘들다는 친구의 갖은 잔소리에도 굴하지 않고, 가는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을 했다. 쉬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곤 나머지 시간엔 일을 반복하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일에 지친 몸을 이끌고 통근 버스에 탈 때면 피곤했지만 자진 않았다. 집으로 향하는 밤 풍경의 창밖을 보며 ‘나는 뭘 할까’라는 고민을 했다. 한편으로는 바라는 것과 가지고 싶은 건 많음에도 그만큼의 노력도 능력도 부족한 미완의 ‘나’지만, 아직도 꿈을 잃지 않고 있는 나에게 고맙기도 한 시간이었다. 이왕수 작가는 지금 살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대는 절대 강자다”라고 말했다. 나 또한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또 한 명의 절대 강자다. 오늘도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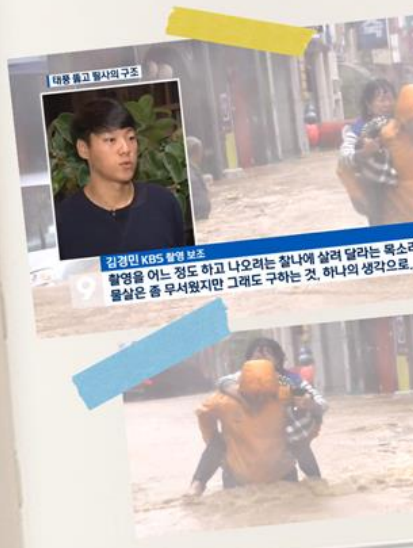
3. 미디어커뮤니케이션 1 김경민

올해로 23살. 무수히 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추억을 만들고 세상의 여러 모습을 보며 살아온 날들. 이 수많은 기억 속에 나를 자랑스러워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 한참을 고민했다. 그러다 작년 이맘때쯤의 기억이 떠올랐다.

작년의 나는 울산의 KBS 한국방송의 보도국 소속 취재팀에서 음향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가을의 낙엽이 물들고, 축제 등 많은 행사가 있어야 하는 시기에 뜬금없이 매우 위력적인 태풍 차바가 발생했다. 차바는 무섭게 울산까지 상륙했다. 도심 곳곳을 다니며 피해 상황들을 촬영해야 하는 보도국 성격 상 물이 역류하는 하수구,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는 도로 등을 촬영하며 이동하는 중, 도심이 침수된 현장을 발견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허리까지 오는 물을 무시한 채 침수 현장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촬영을 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목소리를 듣게 됐다. 그 순간 지대가 낮은 쪽의 상가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눈에 보였다.

아저씨 두 분과 아주머니 한 분이 서 있었는데 물이 불어 아주머니 허리까지 차차 당황한 나머지 달려달라고 외치신 거다. 나는 아주머니를 업고 상가를 빠져나오게 되었다. 처음엔 “왜 옆에 있는 아저씨들은 안 도와주지?”, “안 업고 그냥 건너서 가도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업고 나서 다시 길을 걸으니 흙탕물이라 물 밑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이때부터 나는 위험을 인지하고 천천히 돌아서 나왔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선배는 내 모습을 촬영했고, 시민을 구한 KBS 제작진으로 총 7번이나 방송을 타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했다.

22살의 나는 일에 치이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공지로 물고 복잡한 생각이 많던 시기였다. 하지만 아주머니를 업고 높은 지대로 나왔을 때 고맙습니다.” 이 말에 나는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는 것, 진심 어린 감사가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그 아주머니를 통해 행복이라는 기본적인 덕목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때의, 그 순간의 내가 가장 자랑스럽다.



태풍 폭풍 물심의 구조

김경민 KBS 촬영 보조

촬영을 어느 정도 하고 나오려는 할머니를 살려 달라는 목소리를 들은 중 무서웠지만 그래도 구하는 것, 하나의 생각으로.

4. 미디어커뮤니케이션 4천효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기쁨의 탄성이 터져 나오는 날이 얼마나 있을까. 나도 모르게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날을 몇 번이나 있었을까.

코삭(KOSAC : 대학생 산학연계 광고창작 경연대회)은 나에게 기쁨의 탄성이자 눈물이었다. 누군가에게 단순히 공모전일 수 있고 스펙을 쌓기 위한 도구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나에게겐 아니었다. 처음으로 서로 연성을 높여가며 조모임을 해보기도 하고 며칠 내내 동고동락하며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 전국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다. 모든 일에 있어 어느 정도 하고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공모전 수상이란 상상도 못 할 일이었다. 공모전에 대한 애착과 신념이 강했던 조원들 덕분에 좋은 결과로 끝낼 수 있었다.

코삭은 내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추억 중 하나이다. 내가 무언가 해냈다는 성취감과 조모임을 통해 이루어진 소중한 인연, 열심히 하면 된다는 확신까지.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줬기 때문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인에게 소중한 기억이자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운 순간은 크고 작게 일어난다. 최선을 다한 일일수록 가슴에 더욱 깊이 파고드는 것 같다. 그러니 다들 포기하지 않고 무엇이든 열심히 해나가기길 바란다.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운 순간을 만들어가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중반쯤 나의 꿈이 정해졌다.
'잡지 에디터' 그 꿈을 내가 너무 좋아했던 나머지
3년 동안 나의 장래희망 란은 변함이 없었다.

나의 'ECHO'



우혜정 에디터의 첫 콘텐츠
'고양이는 항상
집사들을 예의주시 한다'

고등학교 1학년 중반쯤 나의 꿈이 정해졌다. '잡지 에디터' 그 꿈을 내가 너무 좋아했던 나머지 3년 동안 나의 장래희망 란은 변함이 없었다. 희망 학과도 그랬다. 항상 신문 방송학과에 대한 나의 로망 아닌 로망을 살았기에 입학 후 그 로망 실현을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다. 개강 컨퍼런스 날 나는 좋아서 날뛰고 싶었다. 학과 프로그램 소개 중 ECHO라는 학과 웹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게 나의 ECHO 입문이었다.

ECHO를 훑어보면서 사람 이야기를 담는 주로 다는 것에 좀 의아했던 것 같다. 폭넓지 못한 나의 지식으로는 잡지라면 사람의 관심을 끄는 콘텐츠나 사회의 흐름을 파악해가며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단순하게 말이다. 시간이 흐르고 생각해보니 사람의 이야기를 담는다는 것이 매우 특성 있다고 생각된다. 패션지, 뉴스 잡지, 책잡지 등 다양한 분야에 잡지가 있듯이 우리는 '사람' 잡지라는 메인 틀이 있다는 기분이 든다. 오히려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뤘기에 그보다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다.

처음 회의를 했을 때를 떠올려보면 부끄럽다. 선배들의 어른스러운 아이디어 제안에 비해 난 아직 멀었지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제안한 아이디어가 거의 다 묻혔던 기억이 난다. 그래도 나의 고양이 이야기를 쓸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막상 지금 그 글을 읽을래? 라고 한다면 NO! 오글거리기에 그지없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꽤 많은 회의를 했고 나도 ECHO에 몰두해 가듯이 다양한 콘텐츠를 제시했다. 하지만 난 항상 좌절하기에 바빴고, 감탄하기에 바빴다. 같은 학번 친구들의 아이디어에 난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난 왜 이렇게 창의력이 부족한 거지? 참 대단한 애다, 난 저렇게 못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종종 해왔고 '선배들은 역시 선배구나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한 나와는 달라'라는 열등감일지도 모르는 자괴감에 빠졌다. 도움을 주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잘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서. 좋아하는 일을 잘하고 싶은 건 당연하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게 아니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라는 생각을 한다. 지금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나의 의견을 얘기하고, 좋은 아이디어는 수용하는 자세를 배웠다.

ECHO에 들어온 지도 어느새 1학기가 지나가고 있다. 나에게 ECHO는 병 주고 약 주는 존재인 것 같다. 마감 날짜에 맞춰 주제에 맞는 글쓰기란 여간 쉬운 게 아니었다. 자료도 조사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글을 쓸지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게 정해지고 나면 난 글을 쓰며 희열을 느끼곤 한다. 우습게도 내가 쓴 문장에 감탄해서다. 이런 문장을 생각하다니 대견해라는 생각도 한다. 글을 쓰면서 글로 받은 스트레스를 푸는 격이다.

ECHO를 지켜오던 선배들의 졸업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나와 나의 동기들은 에코를 지켜나가자 라고들 말을 한다. 우스갯소리로 군대를 가는 친구가 자신이 올 때까지 잘 하고 있으라며 말을 한다. 항상 선배들의 발아래에 있었는데, 우리들이 이제 18학번들을 위한 버팀 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종종 들었다. 아직 남은 이야기이지만 혼자 앞서나가는 걸 좋아해서 그만 이런저런 생각을 해버렸다.

1주년이 되었고, 앞으로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ECHO를 우리만의 방식으로 잘 RESTART,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또, 대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하면 ECHO가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사람들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매개체인 ECHO가 되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이다.

ECHO의 1주년이 n주년이 될 수 있도록.

알아두면 쓸데없는
 •기대려 잡다정보

권재승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타자마자 이어폰을 꼽고 노래를 듣는데,
 꼭 플레이리스트 첫 곡부터 들어야 해요

유혜정

1. 손톱 길렀다가 물어뜯고 무한 반복해요.
2. 가끔 귀엽다고 말하면서 진짜 귀여운 걸 보면 눈물이 나오.
3. 귀 뚫는 걸로 스트레스 풀고 희열을 느껴요.



윤유이

1. 본가 엘리베이터에서 꼭 사진을 찍어요.
2. 본가에서 술을 먹으면 집에 가기 전 편의점에 들러 커피 우유를 사는 게 주정이에요.



손현아

1. 망고는 싫지만 말린 망고는 먹어요.
2. 요즘 길고양이 밥을 줘요.



김고은

1. 옷 중에 잠옷이 제일 좋아요. 학교에 잠옷 입고 가는 상상, 나만 하는 거 아니죠?
2. 최근에 안대를 샀어요. 이제 해있을 때도 눈 안 부시게 잘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김가희

나는 누워서도 이를 닦을 수 있어요!

공유나

나는 술 먹을 때 콜라만 마셔요!



나중이

1. 일을 시작하기 전 주변에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일을 진행할 수 있어요.
2. 집에서는 항상 블루투스 스피커로 클래식과 가톨릭교회의 전례 음악을 들어요. 특히 파이프오르간의 힘찬 연주곡을 좋아해요.

•이수민

1. 아침 수영 갈 때마다 보는 새끼 강아지 이름이 초코도 아닌데 초코라고 불러요.
2. 술 먹으면 인형을 더 잘 뽑아요.
3. 사실 글씨 잘 쓰는데 날려 쓰는 거예요.

조은진

1. 목욕용품에 관심이 많아 기숙사에 유일한 목욕 바구니를 2개나 가진 사람이에요. (당당)
 특히 그중에서도 목욕 도구에 관심이 많은데, 때가 잘 밀린다는 때르메스 때 장갑을 인터넷 공동구매로 신청하면서까지 사는 목욕용품 덕후입니다. (때밀이 장갑 좋더라. 추천)
2. 데드라인의 노예입니다. 꼭 데드라인이 가까워져야 글이 써지는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그래도 고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리고 글을 쓸 땐 항상 캔들을 켜야 집중이 잘 됩니다. 좋은 향기는 나를 좋은 글로 데려다 주나 봐요.
 내 최애 캔들은 '양키 캔들의 핑크 샌드'



손민정

샤워할 때 전화하면서 샤워할 수 있어요! (방수팩 없이)

정지영

1. 스트레스받을 때 눈물 나올 것 같은 이별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요.
2. 로드숍부터 백화점까지, 화장품에 대한 정보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3. 같은 영화 여러 번 보는 것을 선호하지 않아요.

김나영

1. 잘 때 입술에 이불이 닿아야 잘 자요.
2. 펭귄을 좋아해요. 그래서 핑구, 뽀로로, 턱시도 샘을 좋아해요.
3. 심심하고 지루할 땐 사람 눈을 그려요.



흘러가는 시간들을 붙잡아 둘 수 있다는 것

내겐 글은 항상 어려운 존재였다. 글은 어떤 천부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쓰는 것이라 믿어왔기 때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나는 일기나 오늘의 감상을 적어두곤 했다. 나의 성과들에 대해 자신감도 없었으니 내일기와 메모들은 당연히 비밀이었다.

아직도 생각이 난다. 난 부산을 좋아해서 항상 중강하고 방학마다 부산을 한두 번씩 다녀오는데, 그때의 부산에서 아무개의 연락을 받았다. '웹진을 기획하고 있는데 에디터로 활동해줄 수 있냐'는 것이었다. 나는 한참을 고민했다.

격주에 한두 번은 영화를 보고 살았지만, 남겨진 건 티켓 찌꺼기와 쌓이는 굿즈들, MC+의 몇 안되는 영화 리뷰 게시글이 다였기 때문이다. 이상하게도 기자인 아버지의 직업을 의식했던 건지, 내 인생에서는 글을 업으로 삼는 일들은 없을 줄 알았다. 게다가 내 인생의 모토가 하고 후회하지 않기였지만, 패를 끼칠 수 있다는 치명적 변수 때문에 그 제안을 망설이고 있었던 찰나였다. 그 아무개는 망설이고 있던 내게 너가 썼던 영화에 대한 글이 좋아서 널 추천 했다고 했고, 나는 그 말을 듣고 ECHO의 창간 멤버가 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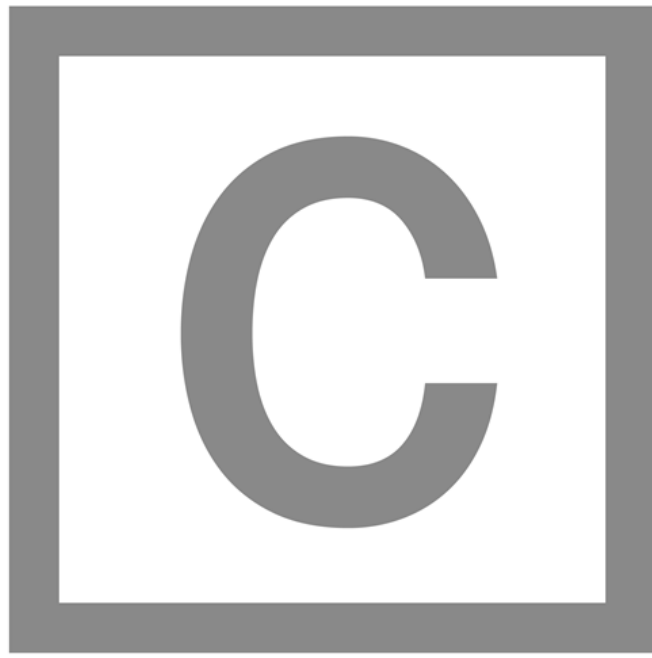
그렇게 흘러 흘러 ECHO와 1년을 함께 보냈다. 영화 리뷰를 어쭙잡게 쓰다가 하면, 첫 번째로 한 인터뷰에서 녹음한 말들을 그대로 따라 적는 바람에 선배에게 지적받고 수정하는 일을 네 번 반복했다. 아직도 부족하긴 하지만, 이제 나는 어엿하게 하나의 인터뷰 기사를 책임질 수 있는 애가됐다.

항상 느끼지만, 글과 말의 힘은 대단하다. ECHO에서 우리가 외쳤던 울림은 누군가의 마음을 꼭 울렸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사실 체감하진 못했지만. 나조차 내가 낸 성과들에 굉장한 자신감이 없었고 불확실했지만, ECHO에서 여러 울림을 주고받으며 '내가 쓴 글로도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했다.

내게 ECHO는 기회였다. 내 손을 거친 모든 작업물에 대해 조금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확신을 얻을 기회. 게다가 여태 그냥 흘러가던 시간들을 글로써 붙잡아두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내게 소중한 기회는 없었다는 걸 ECHO를 통해 깨달았다. 그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글 쓰는 것을 비밀로 하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나의 이야기다.

비록 ECHO는 이쯤에서 떠나지만, 언젠가 어디선가 함께할 ECHO를 응원한다.





Communicating



창간1주년특별기고

구체적 활동으로 자존감을 키워라

박한규 대한법률구조공단 홍보실장

박한규 대한법률구조공단 홍보실장은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났고 마산고등학교를 거쳐 중앙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다소 적극적인 성격으로 중학교 때는 동양방송의 '중학생 퀴즈왕'에 출연했고, 고등학교 때는 응원단장을, 대학 졸업반인 1987년에는 MBC의 대학생 퀴즈프로그램 '퀴즈 아카데미'에 출연 장원을 했다. 미8군 용산캠프에 있는 25T에서 카투사로 미군들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병역을 때웠다. 1988년 호남정유(현 GS칼텍스)에 입사해 2001년 초까지 다녔다. 2003년까지 같은 회사가 투자한 주유소 MRO의 온라인 거래를 주사업으로 하는 넥스테이션(현 GS엠비즈)을 창업해 CEO를 맡았다. 이후 ET바이크 사장, 여성가족부 사무관, STX조선해양 홍보팀장, 아람코아시아코리아 대외담당 전무를 거쳐 현재의 대한법률구조공단 홍보실장까지 오는 동안 모두 네 번에 걸쳐 총 2년 수개월의 백수생활을 경험했다.

인생에는 우연으로 가장한 필연들이 도사리고 있어 무엇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절대당장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네 번의 백수생활을 통해 터득했다. 2016년 2월부터 동아일보 주말 칼럼 '굿바이 서울'에, 3월부터는 경남신문에 시론을 썼다.

청춘(青春)!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鼓動)을
들어 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중략>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 속에 든 칼이다.
청춘의 끓는 피가 아니더라면, 인간이 얼마나 쓸쓸하라?
얼음에 싸인 만물은 얼음이 있을 뿐이다. <후략>

19세기 말에 태어나 20세기 초까지 살았던 소설가, 언론인
민태원이 쓴 수필, '청춘 예찬'이다.

나는 1962년에 태어났으니 올해 55세다. 하지만 여전히 저
수필을 처음 대했던 고교시절을 생각하면 가슴이 더워진다.
다만 가슴만 더울 뿐 나의 청춘이 어땠는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니라 얼굴이 더워진다.

1993년 시카고의 어느 맥줏집에서 고교동창 친구와 맥주를
마신 적이 있다. 그 친구를 처음 만났던 때인 1978년에 "15
년 후에 미국 땅에서 만나 맥주나 한잔 마시자."고 했다면
그건 웅대한 꿈이나 뛰어난 상상력이 아니라 거의
정신병자의 증언거림 정도로 치부되었을 거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았다. '희망'한 것이 아니라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겪고' 살았다. 아니 '누리고' 살았다는 표현이 더
솔직하지 싶다.

1960년 전후 약 10년간 이 땅에서 태어난 세대는 감히 단군
이래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던 세대라 단언한다. 그런 호황기를
누리는 동안 후세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없었고 그랬으니 당연히 실질적 노력도 없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가 없어 고생하는 젊은이들과 세상에
별로 공헌할 일이 없는 공무원이나 하겠다고 목을 매는
청춘들을 보면 측은하고 미안하기 짝이 없다.

그렇다고 신세 한탄이나 하고 기성세대 원망이나 하면서
살아 본들 현실은 별로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 실제로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 하지만 그 노력의 방향이 그릇된 한곳으로
쏟려 안타까울 때가 많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열심히 가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보면 패배의식에 빠져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자존감'이다.
그런데 다른 모든 일처럼 이 자존감마저 타인의 시각에
의존하는 듯하다. 자존감이란 문자 그대로 스스로 [自]

존재하는[存] 느낌[感]이다. 타인의 존재를 통해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좀
위험한 접근이다. 타인이라는 존재가 그리 굳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강한 믿음과 인식을 확보하기 바란다. 세상 모든 일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일은 아주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쉽다.

국내외 기업과 정부, 공공기관에서 근 20년 동안 홍보일을
해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공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나에게도 아주 중요한 도구 중 하나였기에 나름의 시각과
평가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양보해도 그 공부는 그다지 '
학술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주 전형적인 실용학문 중
하나로 평가한다. 그러니 전공 공부도 충실히 할 겸 또
미래의 전공 관련 일에 대한 훈련 차원에서 시도해 볼 만한
아주 간단하지만, 가치 있는 일들이 있다. 예를 들어 상당
기간 특정 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 크기, 논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변화를 확인해 보거나 아니면 특정 사안에
대한 언론들의 보도 태도를 비교하는 일, 아니면 기사의
요류를 찾는 일등은 충분한 현실적 가치가 있다고 본다.

나는 국문학을 전공했다. 학교에 간 날보다는 가지 않은 날이
더 많은 나 같은 사람이 졸업장을 받고 또 번듯한 회사에
취업하여 다닐 수 있었던 일은 엄청난 행운이다. 학창시절
공부를 열심히 해 보지 않은 후회는 없지만 아주 구체적인
후회는 하나 안고 있다. '국어사전 읽기' 과내 몇몇 학생들이
모여 국어 대사전을 나누어 읽으면서 카드를 만들어 '비슷한
말 사전', '우리말 역순 사전'도 만들었다. 그 일을 해 보지
못한 것이 아주 크게 후회된다.

청춘은 가면 오지 않는 애인과 같다. 뜨거운 가슴을 잘
껴안고 그 온도와 힘을 온전히 느끼면서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무엇이든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바닥을 볼 것을 권한다.
여러분들의 청춘이 한없이 부럽다.



백수라서 다행이다 (인생 2막을 위한 활력 충전기)
저자 박한규, 인더북, 2016

'백수라서 다행이다'는 2015년 2월 여섯 번째 직장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한국법인을 떠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2013년 3월 10일 경남 함양군 금계에서 시작해 산청, 하동, 구례, 남원을 거쳐 출발점까지 13 일 동안 매일 7~8시간, 20KM씩 총 250KM를 걸어 간 이야기다. 이야기 속에는 수많은 중년 백수와 예비 백수들에게 전하는 경고와 격려 또 그들만의 애환이 녹아 있다.

2016년, 여름처럼 덥지도 겨울처럼 춥지도 않은 가을
그 가을에 어느덧 우리의 몸이 녹아날 그 즈음 당신이 자랑스러울 때
그 찬란한 모습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ECHO가 어느덧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동안 ECHO안의 많은 이야기들 중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아있나요?
언젠간 당신의 이야기도 ECHO의 하나의 이야기가 되길 기다리며 익숙하지만 새로운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익숙하지만 새로운 그들의 이야기

고양이들은 집사들을 항상 '예의주시' 한다. 집사들도 그렇다.

17. 우혜정



반려동물이 집사를 예의주시하듯 집사들도 반려동물을 예의주시한다. 항상 관심을 쏟아 부으며 과하리 만치 애정을 주는 집사들이 있다. 때론 조금 과하게 말이다. 그게 바로 나다. 보리를 입양한지 어느덧 10개월이 넘어가고 있다. 항상 입에 붙이고 사는 말이 보리는 왜 이렇게 애교가 없을까 인데, 최근에 안 사실이지만 '나한테' 왜 애교가 없지 인데, 집사로서 서글픈 얘기다. 나의 관심이 너무 과했나 싶지만 어쩔 수 없다. 할머니, 엄마, 동생에게는 잘도 간다. 침대에도 잘 올라가고 다리사이에서 단잠을 자는 건 기본이다. 보리는 안 운다.

하지만 할머니만 보면 몸을 부비며 울곤 한다. 집사로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 모습마저 귀여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서두는 마무리하고 보리의 근황을 궁금해 하는 독자들에게 보리의 얘기를 하겠다. 보리는 중성화 수술 이후로 호르몬 변화 때문에 살이 찼다. 달릴 때면 뺏살이 옆으로 흔들리는 괴기한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 보리는 얼굴은 살이 안찌는 체질인지 얼굴은 날씬하다. 이런 보리는 걸어가다 픽 누워버리는 이상한 버릇이 생겼다. 몸뚱이가 커진걸 아는지 캣타워 꼭대기 층에 올라가지 않는 모습도 보인다.

그래도 귀엽다. 보리가 좋아하는 장소도 조금씩 바뀌었다. 캣타워 2층, 의자, 거실 창문 옆 햇살이 들어오는 틈을 좋아한다.

뭔가 보리스러운 위치 선정이다. 보리가 너무 마이웨이이라 몰랐지만 보리도 외로움을 엄청 탄다. 하루정도 가족모두가 집을 비운 적이 있었다. 늦게 집으로 갔을 때 보리는 빠져있었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이런 사랑스러운 반려동물들에게 어떻게 무관심 할 수 있을까 과하면 과했지 덜 하지는 않는 것 같다. 1주년을 맞이해 짧게나마 보리의 근황을 알릴 수 있어서 기쁘다.

아주 작고 소소하지만 내 삶의 첫 독립이 시작됐다.

-8개월 뒤 나의 또 다른 이야기

15. 성혜원



8개월이 흘렀다.

늘 시간이 더디게 간다고 생각했는데 빠르든 느리든 시간은 그렇게 흐르고 있었다.

나는 이제 어느덧 3학년의 끝에 와있다. 지난 학기와 달라진 점을 생각해보노라면 아마 내가 향하고 있는 길이 아닐까 싶다. 늦으면 늦다고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다른 것을 배워보고 싶어 졌고, 그렇게 나는 남들보다는 조금 늦은 복수전공을 시작했다. 늦게 시작한 만큼 해야 할 일들이 줄을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4학년을 마치기 직전까지 수업을 짹짹 채워 들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하나 더, 나에게 있어 가장 어렵고도 어려운 아침 기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또 다른 변화라고도 할 수 있겠다.

물론 5일 내내 아침 수업이 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 거지만 말이다.

두 번의 알람을 꺼버리고 마지막 알람이 울릴 때쯤에야 겨우 일어나곤 하지만 일찍 일어나는 그 나름의 좋은 점이 있는 것 같다.

늘 빠듯하게 흘러갔던 하루가 길어져서 좀 더 알차게 하루를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집을 나설 때 코끝에 닿는 맑은 아침 공기가 하루의 시작을 기분 좋게 한다는 사실을 문득 느끼게 되었다는 것.

오늘도 나는 떠지지 않는 눈을 힘겹게 뜨며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어떤 일들이,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하루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늘 그렇듯 담담하게 문을 나서겠지.

그리고 코끝에 닿는 맑고도 상쾌한 아침 공기에 슬며시 미소 짓겠지.

방안에 정적이 흐르고 바깥에 고양이 소리가 '야옹' 두 번 외칠 때 오늘도 다시 꿈이라는 세상으로 다가간다.

- 나의 일상.. 그리고 변화

14. 조용호

10월 어느 주말 일요일 아침

아아아아악! 젠장 또 꿈을 꿔다. 요새 떨어지는 꿈을 자주 꾀다. 키가 크려나? 이불 밖으로 머리를 빼꼼 내밀고 주위를 살피본다. 뭔가 춤다. 이걸 잘못되었다. 아침이라고 추운 것이라 생각했지만 창문을 바라보니 문이 열려있다. 내가 열었었던가? 찬바람이 직진해서 내 얼굴을 강타한다. 지끈지끈한 머리를 뒤로 하고 손을 쭉 뻗어서 휴대폰을 더듬더듬 건드려 본다. 시간은 10시 27분 알람을 맞춰놓지 않았는데도 눈이 번쩍 떠진다. 번데기처럼 자는게 습관이라 아침에 몸이 찌뿌둥하다. 이러다 나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오늘도 밖에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고 똑같은 새소리가 계속해서 들린다. 똑같은 상황, 풍경 뭔가 외롭고 따분한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아 머리가 아프다. 회의감이 든다. 뭔가 일상적이고 진부한 이 정형화된 상황을 타파할 무언가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따분하다는 뜻이다. 뭔가 거창하게 써보려 했으나 나랑은 맞지 않는다.

자취이야기를 쓰려고 하다가 1학기 때와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서 자취방 주변의 얘기를 써내려가 보려고 한다. 부스스한 머리를 긁적이며 눈을 깜빡깜빡 세 번 움직이고 난 후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이대로는 아닌 것 같아 옷을 대충 끼입고 운동화 끈을 세게 묶어본다. 일요일 아침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한적하다. 고양이들만이 쓰레기 더미 근처에서 고개를 내민다. 잠시 무언의 눈싸움을 한 뒤 고양이는 나를 귀찮아하는 듯 이내 자리를 떠났다. 무작정 나와 정처 없이 마을 주변을 돌아보는데 썩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평소 저녁이나 밤에 집을 향하다 보니 못보고 지나친 아름다운 것들이 나의 눈을 즐겁게 한다. 담벼락 사이사이에 핀 꽃들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그림, 귀여운 낙서, 하품하는 고양이, 낡은 자전거 등등 고등학교 국어 책에 나오는 듯 토속적인 장면이 많이 나와 어렸을 적의 기억을 떠오르게 한다. 걸다보니 어느새 다시 나의 집에 도착했다.

요즘은 1학기 때와는 다르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면의 불편한 감정들이 누그러졌다. 이유는 나도 모른다. 1학기 때의 불안한 감정, 내적의 감정들이 왜 생겼었고 이번에 왜 해소가 되었는지...

나의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방에도 조금의 변화가 생겼다. 뭔가 밝아지고 색이 있는 물건들을 많이 들었다. 알록달록 예술적으로 방을 꾸미고 있다. 허전함과 외로움을 대신해서 집에 오고 싶어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냉장고에도 변화가 생겼다. 원래는 물, 술, 김치 간단한 음식밖에 없었으나 지금은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도 내보려고 안심고기도 사보고 케이크도 사보고 뭔가 비타민도 부족한 것 같아 과일도 사서 짹짹 채워두었다. 행복함도 잠시 화장실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스트레스가 파도처럼 밀려온다. 아니 갑자기 자취방 화장실 불이 깜빡거리다가 결국 숨을 거두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말했는데 전구 사오면 같이준다고 한다. 말인지 방구인지 내가 같고 말지... 쳇쳇쳇이다. '안해 안한다고!' 말은 안했지만 소극적, 암묵적 선전포고다.

화장실을 다녀온 뒤 아무생각 없이 그냥 몸을 맡겼는데 어느새 내 몸은 침대에 반쯤 걸렸다. 의자와 침대 사이 그쪽? 책상과 의자는 공부하라고 나의 허리를 잡고 침대는 다리를 잡아당겨서 줄다리기를 한다.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생각하다가 지금 이 상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노래를 들으며 2시간동안 있었다. 적절하지 않는가? 후훗 그러다 일기 쓰라고 누가 강요를 무지무지하게 해서 예고 결국 마지막 문장이다. 자취생들이 느끼는 감정들 중 공허함을 제일 많이 느낀다고 한다. (똘 들은 얘기지만 팩트는 아니다) 그럴 때는 나가라 나가서 새로운 경험도 해보고 가까운 내 주변이라도 둘러보는 것을 한번 추천해본다. 청춘들이여 문을 열고 운동화 끈 꼭 메고 나와라 나는 좋더라~



Hosting

우리들의 Youth

그들의 찬란한 6개월간의 이야기

천 효 진 · 주 예 진 · 황 석 태 · 조 은 진 · 이 승 민



글 우혜정

교수님께서 공모전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집 했던 기억이 얼핏 난다. 광고에 관심이 없었던 나는 당연히 그 자리에 가지 않았고, 나의 기억 속에 잊혀져갔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잊혀 질 쯤 교수님께서 수업 대신 광고 공모전 예선을 본 사람들만 출석 학인을 해주겠다고 했고, 반 강제로 공모전 예선에서 ‘YOUTH’를 접했다. 아이디어는 훌륭 했고 발표 역시 재미 있었다. 발표를 위해 노력한 흔적들도 보였다. 후배로서 선배들이 존경스러웠다. 선배들이 어떻게 나아갔는지 궁금했다. 다양한 이야기도 듣고 싶었다. 그럴 찰나에 이 인터뷰를 담당하게 되었다.

Q1. KOSAC에서 발표한 주제를 간략하게 얘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As you like it!' 광고에 대한 호기심에서 호감으로 가기 위해 광고를 능동적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광고를 즐기는 방법'] 현재 광고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광고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에 끝없이 답을 찾은 결과 광고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즐길 만 한 존재로 인식 시켜 주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광고카피로 힐링받고, 광고 속으로 여행도 가보고, 광고가 의외로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색다른 생각도 해보게 하고, 광고로 굿즈를 만들어 곁에 둘 수 있고,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imc 전략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을 3단계 구성으로 점차 확산시켜 더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Q2. '광고를 광고하다'라는 주제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있을까요?

사실 주제를 처음 들었을 때 우리 팀원들 모두가 굉장히 막막해 했어요. 처음엔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던 거 같아요. 어려운 주제인 만큼 쉽게 풀리지 않더라구요. 어쩔 수 없이 정면으로 부딪히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때까지 부딪혀보는 거야. 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밤을 새워가면서 회의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직접 프로토타입도 만들어보고, 캠페인도 실행에 옮겨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점점 더 뚜렷한 저희만의 광고를 광고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3. 팀명이 YOUTH인데 어떻게 정해지게 되었나요?

YOUTH 청년이라는 뜻이잖아요. 팀원들 각자의 이름 이니셜에 Y.O.U.T.H가 들어가기도 했어요. 바로 우리가 청년이라고 생각해서 망설임 없이 이름을 정하게 되었어요. 팀원들 다수가 대학생활을 마무리해가는 4학년들이었고, 다섯 명의 유스들이 정말 청년을 뜨겁게 한번 여기에 쏟아보자 라는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그만큼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더 후회 없는 시간이었던 거 같아요.



Q4. 6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몇가지 있을까요?

승민 - 예선 PT제출을 앞두고 밤새서 회의한 다음날 아침 일찍 석태 선배가 다들 차에 태우고 간 스타벅스에서 단체로 시켜 먹은 아메리카노. 단체로 탈이 나서 하루 동안 회의 하면서 화장실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지. 많이 아팠지만 왜 그리 웃겼는지 웃었던 기억이 더 커요! 아직도 가끔 팀원들 만나면 그 얘기로 한 바탕 웃곤 하는 거 같아요.	예진 - 석태 선배 차 번호 1225라 크리스마스 라고 부르던 봉봉이 타고 포항 가서 환여횃집에서 물회 먹고 호미곶 가서 갈매기가 다섯 손가락에 한마리 씩 얹아 있는 거 보면서 소원 빌고, 마지막으로 포항 에서 가장 유명한 닭강정 사서 뒤는 차도, 앞은 바다인 곳 에서 돛자리 깔고 모기밥 되면서 얹얹 맛있게 먹은 거! 지금 생각해 보면 호미곶에 얹아 있던 갈매기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줬던 거 같아요	석태 - 1307 스튜디오 에서 밤 새며 회의하다가 답답 해서 새벽에 학교 산책 하고 편의점 가서 야식 먹고 딱 힘내서 다시하자! 하고 먹고 돌아와 회의 조금하고 누가 뭐랄 것도 없이 다 책상 위에 널부러져 잠 들었던 때가 생각나네요. (ㅋㅋ) 다시 또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미친 듯이 했던 기억이에요.	은진 - 각자 멀리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회의를 하려면 누군가는 아주 멀리서 왔어야 했어요. 예선 당시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은상을 받게 되고 본선 진출이 확정 되면서 뒷풀이를 거하게 하고 싶었지만 집에 가야 했기 때문에 집에서 화상통화가 되는 프로그램 스카이프로 뒷풀이를 한 기억이 있어요. 다들 맥주 하나에 먹고 싶은 안주 사 들고 영상으로 짤 하던 그때가 새록새록 생각이 나네요. 너무 좋았어요	효진 - 회의 하다가 즉흥으로 쏘카 빌려서 하얏 까지 밥 먹으러 가서 해물찜 엄청 나게 먹고 또 바로 후식으로 버거킹 가서 햄버거 먹은 일. 아마 조 모임 하면서 쓴 식비가 상금 보다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 또 학교에만 있기 싫어서 시내로 아이디어 회의하러 갔다가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보드게임 하러 가서 엄청 열심히 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	--	---	--	---

진심으로!



Q5. 본선까지 진출하셔서 금상을 받으셨어요. KOSAC을 하면서 간단한 소감과 앞으로의 다짐을 얘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진심을 다했고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이것이 배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만의 눈으로 본 세상에 대한 해답들이 틀리지 않음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Y.O.U.T.H 라는 다름이 모여 멋진 결과에 다다랐고 우리는 증명해 보였던 거 같아요. 제대로 공부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저희의 6개월간의 멋진 항해는 끝이 났지만, 살면서 외로울 때면 찬란했던 6개월을 기억할 것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YOUTH는 더 먼 바다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감사합니다.

몽골 신바트 스타의 유학생 생활



한국문화(K컬처)를 배워 몽골에 한류 바이러스를 퍼트리겠다는
20대 몽골 연예인이 있다. 이달 초 "K컬처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겠다"며
경북 경산시 대구대학교에 새내기로 입학해 유학 생활을 시작한
르하위수령 신바트(21·미디어커뮤니케이션과)가 주인공이다.
중앙일보 신바트 기사 中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7학번 몽골에서 온 신바트라고 합니다.

Q1

몽골에서 되게 유명하신데 어떻게 유명해지셨나요?

되게 유명하다고 하면 너무 부담스럽구요. 어느정도 몽골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연기하는 것을 좋아해서 몽골에 연극 동아리를 다녔어요. 동아리보다는 조금 큰 개념이지만 그 동아리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아역배우, 광고모델 등 다양한 활동들을 했고 방송국에서 청소년 프로그램 MC 오디션도 진행했는데 그 오디션에 참가하였는데 그 오디션에 운 좋게 붙게 되어 18살까지 방송국에서 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몽골에서 어린이들이 저를 많이 알아봐주었는데 어른들도 많이 알아보는 사람이 됐어요.

Q2

많은 학과 중에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로 온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어렸을 때부터 방송국이라는 곳에서 자라왔고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방송PD가 되고 싶어서 왔어요.

Q3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재미있게 듣고 있는 수업이 있을까요? 있으면 왜 재미있었는지 말해주세요

솔직히 말하면 다 어려워요. 어렵긴 하지만 듣고 있다보면 재미있고 그중에 골라야 하면 영화로 보는 한국의 극형 대사라는 수업이 재미있어요. 영화를 보면서 대사를 배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앞으로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Q4

어떤 꿈을 가지고 교환 학생으로 온지 궁금해요.

많은 꿈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많이 배워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것 다 얻어 가고 몽골에 몽골예능 프로그램 만들기가 제 꿈이에요. 그리고 더 큰 꿈이 있다면 방송국사장이 되는 것?

Q5

몽골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적응하시는게 힘들었을텐데 적응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외로운 느낌을 받았어요. 가족과 고향을 보고 싶을 때가 있었고 이제는 제가 제 스스로를 제가 책임지고 결정하고 해결한다는 것이 좀 어려웠어요. 또 하필 여름에 유학을 와가지고 너무 더운 날씨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국에 대해서 너무 많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도 제 스스로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을 느끼고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자 한국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보라는 생각을 했고 한국 노래 예능프로그램에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한국 문화의 모든 것에 빠지게 되었어요. 노하우라면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적응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Q6

마지막으로 앞으로를 위한 다짐 부탁드립니다

다짐이라고 하면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꿈을 이루고 꼭 성공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대중영화제 시상식, 골든디스크 시상식, 쇼트트랙 시상식 등 여러 사람들의 축제가 되는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시상식'이다.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와 달성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수여하는 것을 말하는 시상식은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영감을 주기도 한다.

"MCPLUS 콘텐츠 찾습 이달의 주인공입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를 사랑하는 미디어 전문 커뮤니티 MCPLUS는. 20대가 즐기는 방법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학생들의 시선으로 매번 신선하고 다양한 콘텐츠들이 생산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각 카테고리에 맞는 글을 작성했을 때, 객관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인 글을 심사해 시상해 주는 '이달의 콘텐츠'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 무려 1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9회째로 많은 학생들의 글쓰기 의욕을 고취시켜주고 있는 셈이다. 비록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위스키를 즐기며 하는 파티는 아니지만 진심을 다해 축하해주고 또 기쁨을 전하는 것만큼은 다른 화려한 시상식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매 회마다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는 엠씨플러스 홍보팀 팀장님의 인터뷰를 통해 이달의 콘텐츠 시상식에 대해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자.

“

MC+에서는 매 달마다 새롭게 올라오는 좋은 콘텐츠들 중 3개의 글을 선정해서 투표와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

바로 '이달의 콘텐츠 시상식'이다.

이달의 콘텐츠로 선정되고, 상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다.

콘텐츠 팀에서 1차로 콘텐츠를 선정하고, 각 엠씨플러스 운영진들이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를 진행해 최종 콘텐츠 3개를 뽑는다.

처음 1차 선정이 50%의 비율을 차지하고,

학과 복도에 이달의 콘텐츠 투표 판이 게시되면 후보 글을 읽은 사람들이 어떤 글이

가장 유용했는지, 흥미로웠는지를 고려해서 투표를 한다.

학생들의 평가가 50%로 총 점수를 낸다.

약 일주일간의 투표 기간이 끝나면 MC+ 팀에서 각각의 투표수를 센 후

3개의 후보 중 받은 표 수가 많은 순서대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나누고 시상식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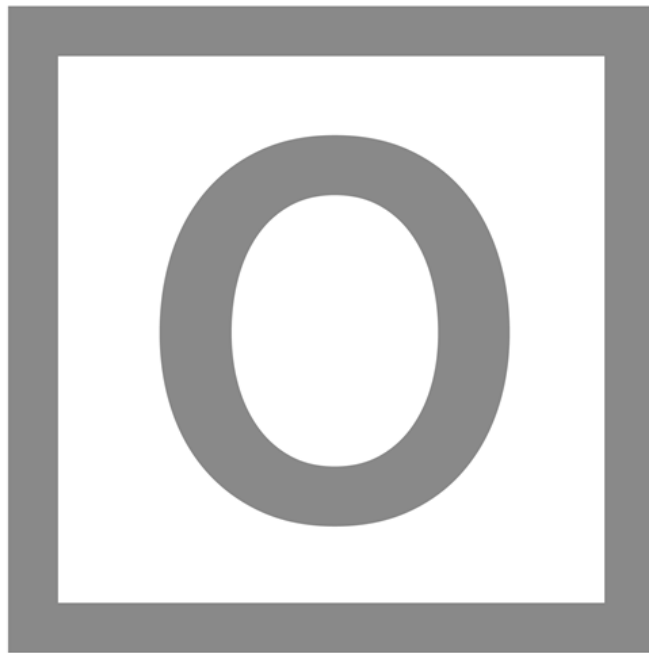
이달의 콘텐츠 시상식에서는 상장 및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권까지 수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글을 적었을 뿐인데 상장과 상품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셈이다.

MC+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 이달의 콘텐츠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언제든지 글을 써주면 감사할 것 같다. - 홍주연 팀장

”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올렸을 뿐인데.' 같은 수상소감 하나씩 준비해서 다음에 있을 이달의 콘텐츠 시상을 노려보는 건 어떨까. 요즘 시대에 필수적인 요소인 디지털 글쓰기 능력도 향상시키고, 더불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내에서의 명예도 얻을 수 있는 1석 2조의 일 아니겠는가. 지금 당장 엠씨플러스로 달려가 나만의 개성이 가득 담긴 글을 써보자. 이달의 콘텐츠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 될 테니까!



Outreaching

지나가버린, 지나가버릴 계절을 기억하며



매주 학원가는 길에 올려다본 하늘은 비슷해 보여도 늘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어제는 군청색이었다가, 오늘은 파란색이었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별 하나 보기 힘든 완전한 까만색이 되니까. 그리고 다른 모양의 희미한 구름을 보는 것도 왜인지 새삼스러워서, 하늘 바라보는 재미로 매일을 보내게 되는 요즘이다.

해는 일찍 달아나고, 온기는 흐릿해지는 계절이다. 사실 어떻게 지나갔는지조차 희미한 여름인데, 찬 공기가 살에 닿을 때마다 어색한 계절의 변화를 체감하게 된다. 코끝에 가을, 매일을 이리다 보면 코에 닿는 것은 가을도 아닌 겨울이 되어 있겠지.

매일 쌓이는 시간이, 하루가, 매일이 다르게 다가온다. 왜 나는 흘러보낸 것을 놓지 못하고, 지나온 날들을 복습하게 되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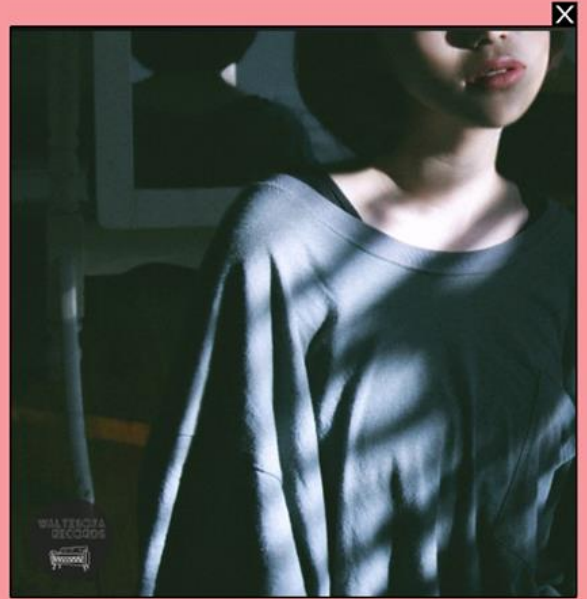
PLAYLIST

1. 지다 - Autumn breeze

나는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어도 잘 안 우는 편인데, 이상하게도 정말 좋거나, 웃기거나, 귀여운 것을 볼 때에는 쉽게 눈물이 난다. 이러한 탓에 사실 '오버하지 마라'는 소리도 적잖게 들었던 편인데, 긍정적인 감정이 극에 달하면 의지와는 별개로 원래 내 몸은 그렇게 되는 것 같다. 오죽했으면 엉엉 웃는 나를 두고 모든 고등학교 친구들이 '재는 원래 웃기면 그래'하고 생각했을까, 싶다.

그리고 작년 딱 이맘때였다. 당시로는 너무 익숙했던 사과대 운동장을 지나던 길이었고, 사실 지나칠 정도로 평소와 다를 게 하나도 없던 날이었다. '그렇고 그런' 세계 속에서 처음 듣게 됐던 'Autumn breeze'는 무던했던 마음을 또다시 몽글몽글하게 만들어주는 무언가였다. 의미 없이 불던 바람은 넘실대는 파도와도 같았고, 그 순간은 일상적인 공간이 하나의 배경처럼 작용하는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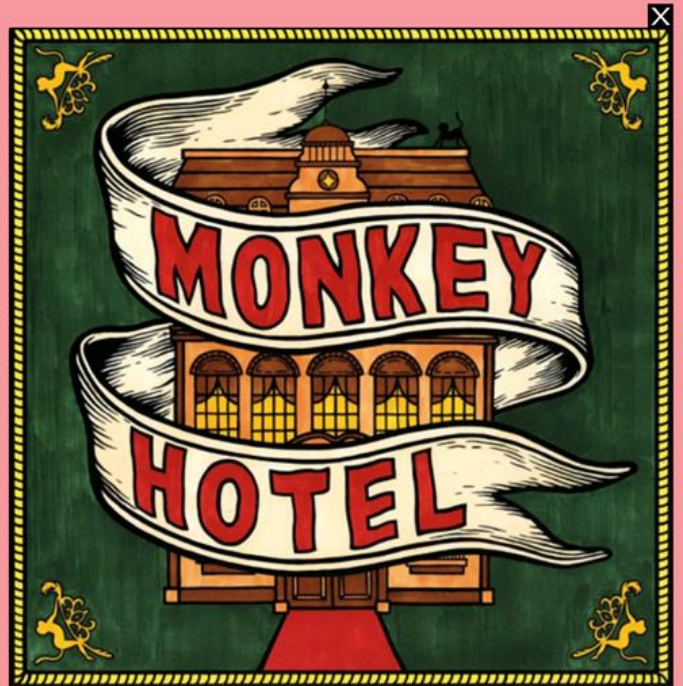
'여름의 막바지에 다가오는 가을은 옛 추억의 향수를 동반한다.' 돌아갈 수 없기에 더 아련하다는 작곡가의 말처럼, 기억을 추억으로 남기는 가사가 머릿속을 맴돈다. 개인적으로 '가을'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노래.



2. 잔나비 -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사적인 얘기를 하나 꺼내자면, 개인적으로 작년 여름은 방학이 끝나면 모든 기회가 사라져버릴 것 같던 때였다. 의도치 않게 누군가와 멀어졌는데, 그 친구가 먼 타지에서 생활하던 만큼 다시 다가갈 수 있는 기회는 오로지 방학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을까. 모든 기대에는 실망이 뒤따르는 것처럼 2016년의 여름은 볼품없는 희망만 동동 떠다니고, 뜨겁게 내리쬐던 날씨에 비해 한없이 미적지근했던 시기였다.

사실 쌀쌀한 밤공기에 여름 특유의 청량함은 마음과 함께 꽤 흐릿해졌지만, 아쉬운 시간을 추억하고 달라고 싶을 때에는 변함없이 이 곡을 찾게 된다. 인디와 비인디의 경계가 많이 모호해진 지금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잔나비의 노래. 보컬 최정훈의 음색이 돋보인다.



PLAYLIST

3. 가을방학 - 셋노랑과 새빨강 사이

계절이 계절인 만큼, 매년 돌아오는 가을이면 어김없이 가을방학을 찾게 된다. 가을방학의 보컬 '계피'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하지만, 청자로 하여금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내 늘 그렇듯 '담담하고 깨끗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는 많은 이들이 힐링곡으로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와 스탠딩 에그의 'little star'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최근 가을방학의 보컬 계피가 쓴 에세이집 <언젠가 너에게 듣고 싶은 말>을 읽었는데, 그녀는 음악으로 접하던 것보다 훨씬 솔직하고 매력적인 사람인 것 같았다. 전체적으로 책의 느낌이 따뜻해서인지 요즘처럼 날이 추워지는 때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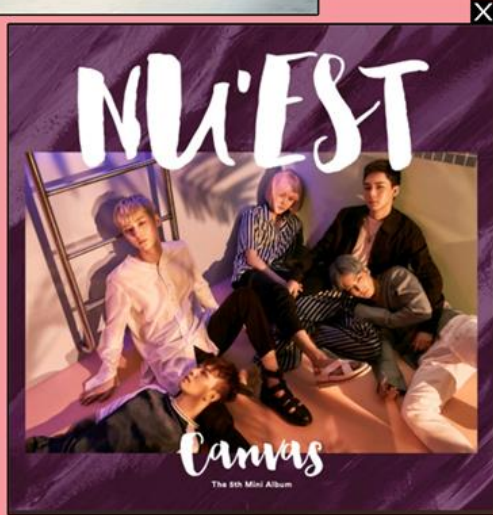
덧붙여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는 대중적으로도 유명한 이 팀의 대표곡이지만 사실 가을방학에게는 이를 비롯한 숨은 명곡들이 많다. 개인적으로 올해 가을은, 이유를 불문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이 맘에 든다는 이유만으로'를 추천한다.



4. 도영, 세정 - 별빛이 피면

한창 흥행하고 주변에서 입소문이 돌 때, 보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넘어갔던 <라라랜드>를 얼마 전 친구와 드디어 보았다. 두 주인공의 감정 변화,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우고 있는 아름다운 영상미와 노래들. 듣던 대로 재미도 있었지만, 사실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작품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눈과 귀에 아로새기고 싶었다. 참 예쁜 영화구나, 싶어서.

별빛을 한 송이의 꽃으로 표현한 예쁜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 '별빛이 피면'은 묘하게 라라랜드의 동화 같은 분위기를 담았다. 고운 말발로 한 줄, 한 줄 써내려간 가사를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밤거리를 걷고 있는 두 남녀의 모습이 떠오른다. 선남선녀의 뮤지션이 호흡을 맞춘 만큼 풋풋하고 귀여운 뮤직비디오는 볼거리를 더한다.



5. 뉴이스트 - Daybreak

별뿔별이 최대 200개까지 떨어진다면 8월의 어느 날, 나는 혼자 베란다에서 이 노래를 들었다. 사실 유독 반짝거리는 별 하나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괜히 멜랑콜리하게 다가오더라. 가라앉은 공기 탓에 축 처지면서도, 그러한 우울감이 편안하게 다가오는 이상한 새벽이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면 정확하게 (슈퍼스타K3)가 마지막이었던 나는 다소 뜬금없게도 이번 <프로듀스 101 시즌2>를 열렬히 챙겨봤었다. 물론 호기심으로 스쳐가듯 봤던 것이 처음이었는데 사실상 높지 않은 가능성이지만, 꿈에 도전하고, 울고,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새 친구의 마음으로 응원하게 됐던 것 같다. 좋아했던 멤버가 모두 '워너원'으로 데뷔에 성공한 덕분에 마지막 회를 보며 참 기뻐했는데, 그러면서도 참 이상했다. 왜인지 마음이 자꾸만 헛헛하던 게.

음... 사실 거두절미하고 그래서 결론은 'Daybreak'는 팬심을 가득 담아서 추천한다는 거다. 물론 팬심을 빼고 들어도 좋고.

나를 살찌우는 것들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살찌기 좋은 계절, 가을이 왔다.

그동안 이런 저런 이유들로 내 몸과 마음을 굶주리게 만들고 있었다면 이번 가을만큼은 살찌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늘어난 뱃살과 불안한 마음의 여유만큼 또 달려가면 되니까. 그럼 이제 내 몸과 마음을 어떤 것들로, 어떻게 살찌우면 좋을까?



운와리 메이진 콩가루 모찌

친구 따라 강남간다고 했던가?

룸메이트 따라 한번 사본 과자에 폭 빠지게 될 줄 생각도 못했다.

텅텅하고 목 메여 보이는 이름과 달리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아서 사라진다.

고소한콩가루맛만남은 게서운해서도 한봉지를 뜯는다.

또 먹고, 또 서운하고, 또 뜯는다. 정신차려보면 늘어난 뱃살에게도 살짝 서운하다. 그래도 이번 가을을 완벽한 인간사료를 찾아서 뿌듯하다.



영화 해피해피 브래드

남편인 미즈시마는 빵을 굽고 아내인 리에는 커피를 내린다. 부부가 카페 마니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손님들을 만나는 전형적이고 어찌면 아주 지루한 일본 영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지루함이 너무 소중해보여서 눈물이 절끔났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사랑이라는 마음의 양식이 당신에게 채워졌다고 장담한다. 영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견뎌낸 수만큼 행복해진다고, 유럽의 어디에선 그렇게 말한다고 해요.”



cj 컵반햇반

이미 생존에 관심이 많은 자취생들에게는 유명한 제품. 엄마 대신 우리를 살찌워주는 고마운 컵반이다. 종류도 어찌나 다양한지 가족사생활 3년째지만 아직 다 못 먹어본 맛도 있다. 술 먹은 다음 날에는 황태국밥을, 괜히 생일 기분 내고 싶은 날에는 미역국밥을, 어릴적 할머니 집에서 먹던 강된장이 그러운 날에는 강된장보리비빔밥을. 역시 한국인은 밥심!



책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 1,2,3

베르나르베르베르의 책을 처음 접하고 머릿속에 딱 떠오른 문장은 “이 사람은 천재다!”였다. 작가가 만들어 놓은 세계관이 현실과 닮아있으면서도 판타지적이다. 그리고 한 소설에서 만들어진 세계관은 끝이 나지 않고 다른 책의 세계와 연결된다. 읽고 난 뒤에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 여러개의 세계관을 직접 경험한 기분이 든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적당한 무게의 책으로 마음의 양식을 쌓아보자.

E
C
H
O

당신을 사랑스러워하라 ECHO

창간 1주년을 맞이하다.

웹진이 벌써 1주년을 맞이하네요!! 매달 학과에서 일어나는 일들, 선배들의 이야기를 웹진을 통해 공유하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꼭 구독하겠습니다. 에코 파이팅!! - 16학번성다희

우리 학교의 대표 웹진 ECHO의 창간 1주년을 축하합니다! 언제나 다양한 콘텐츠들로 보는 재미, 읽는 재미가 가득한 ECHO가 앞으로 더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정독할게요 ECHO 파이팅!! - 17학번손민경

에코 1년 축하드립니다. 지금껏 그래 온 것처럼 앞으로도 지금처럼 다양한 소식들과 콘텐츠로 가득 찬 에코를 응원하겠습니다! 에코파이팅~-14학번 이상원

ECHO 웹진의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매월 새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지 벌써 1년이나 흘렀네요. 잘해오신 지금만큼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ECHO 기다리겠습니다:) - 15학번이신혜

웹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신입생으로 들어와서 웹진을 접한 것도 엇그제인 거 같은데 벌써 1주년을 맞이했네요. 항상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깔끔한 디자인, 패션, 등 다양한 주제에 있어 완성도 높은 소식지로 만들어져 감사합니다. - 17학번김경민

당신을 사랑스러워하라! 미디어 웹진 ECHO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많은 학부생들의 뜻깊고 즐거운 일상을 담아 학부생들과 소통하는 ECHO!! 앞으로도 계속 아름답고 친란한 ECHO가 되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 12학번최성웅

안녕하세요! 2017학년도 아메바 CEO 13학번 유지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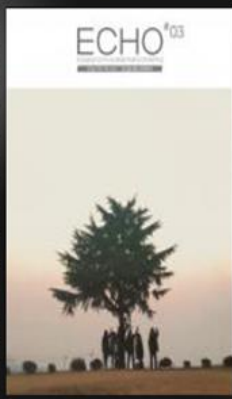
올해 계속해서 ECHO가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뿌듯합니다. 항상 어디서나 소통하려는 웹진원들과 그에 소통하는 학우들과 교수님들을 보니 정말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1주년 계속해서 10년, 20년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파이팅 하시고 학과에 발전에 이바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13학번 유지훈

ECHO의 1주년에 대한 축하의 말을 전하기에 앞서 저의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자 해요.

저는 세상이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제가 본 세상은 아름다움이라는 형용사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어릴 때부터 힘과 권력에 의한 사람의 '서열화' 그 서열에서 뒤처지는 사람에 대한 '희생양화', 사람이 사람을 유희로 삼는 세상, 사람의 가치화' 그것이 제가 겪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는 세상에서 떼어놓고 보면 주류든 비주류든, 앞서가던 뒤처지던, 각각의 색깔로 빛나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ECHO'가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었으면 해요. '빛나는 사람이 아닌, 빛날 수 있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보여주는 'ECHO'가 되길 기대할게요. 'ECHO의 울림'이 세상에 가득 퍼지길 기대하며, 이만 글을 줄일게요.

1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10학번손준섭



E C H O

안녕하세요. 2017년 스투커 CEO,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5학번 곡미소입니다.
एको 웹진의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에코 에디터 분들의 정성으로 예쁜
새싹을 틔운 에코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나가 10주년, 20주년이라는 열매를
맺어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주년 축하드립니다.** - 15학번곡미소

“당신을 자랑스러워하라!” 요즘 청춘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의 말일지도 모릅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고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겁을 먹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एको가 이런 청춘을 대표로 세상에 ‘울림’을 외친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 울림에 감명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공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들 중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 자리에서
큰 울림을 주는, 청춘을 대표하는 ‘एको’가 되길 바랍니다.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16학번장보람

ECHO 1주년을 축하합니다!! 에코는 누군가의 삶을 같이 공유한다는 것이 재밌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해줬습니다. 지금까지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는 웹진이
되길 바라고 1주년을 넘어 2주년, 3주년 더 많이 좋은 글 쪽쪽 발간해주세요!!
당신을 자랑스러워 하라! 에코파이팅!!! -16학번손민정

대구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를 대표하는 웹진.
ECHO 창간호를 접하면서 선배님들의 실력과 아이디어에 감탄한지 잊고 있는데
벌써 1주년이 되었다니 시간이 참 빠르다는게 이제야 제대로 실감이 나는 듯합니다.
एको는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며 아직 배움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학생들이
여느 기업을 웹진 못지않게 최고의 퀄리티로 만들어내는 웹 잡지를 보며 선배님들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월마다 새로운 주제로 흥미를 더해 기존의 독자들은 물론
새로운 독자들까지 함께 걸어가게 하는 매력에 저는 에코에 더욱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एको의 1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에코의 슬로건인
‘Soyez fier de vous’을 잊지 않고 제가 느꼈던 만큼 우리과 학우들에게 나아가 에코를
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CHO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ECHO. 감사합니다. - 16학번이슬미

ECHO 벌써 일 년!

정말 시간이 빠르다는 걸 느끼네요. 창간호 발간 회의 전 ‘ECHO’라는 웹진의
아이덴티티를 만들기 위한 회의부터 기억이 생생합니다. 점점 더 다양한 울림과
깔끔하고 예뻐지는 ECHO를 보면서 편집장을 맡던 저는 뿌듯하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ㅎㅎ 그리고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ECHO 에디터들의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는 모습들이 참 부럽고 자랑스럽습니다.
ECHO 슬로건처럼, 늘 당신을 자랑스러워하며 앞으로도 늘 기대하겠습니다.
ECHO 추가포카포카칩! -ECHO전편집위원장 11학번정연주

1년간 잠들기 전에 봤던 ECHO는 사람 냄새가 나서 좋았다.
나와 같으면서도 같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배시시 웃음을 짓게 만든다.
.ECHO에 실린 글에는 청춘의 마음을 울리는 사람 냄새가 난다.
언제나 지금까지처럼 그대로 큰 울림을 지닌 ECHO가 되길 -14학번주예진.

‘Soyez fier de vous’
당신을 자랑스러워해라

ECHO⁰⁵



ECHO⁰⁶



ECHO⁰⁷



ECHO⁰⁸

